

가족, 사회책임이다 (4) - 어머니

사모님 · 미시족은 그만, 온전한 개인이고 싶다

진정한 '모권확보 1세대' 출현 위한 자기탐색 필요



‘하는 일 없이 놀면서’ 돈을 쓴다는 죄의식이나 자책감을 갖는 특징을 분명히 안고 있구요.”

태혜숙(대구 효성여대 영문학) 교수의 말이다. 그러면서 태교수는 그 갈등과 혼란에 사로

하고 자유롭게 결정해 책임지는 일에 의외로 철저히 못한 모습을 보이며 일과 가정이 언저리에서 방황하고 있죠.”

그리고 태교수는 이런 결과가 불평등한 교육과 훈련기회와 함께 대중매체의 여성이미지와 동화하려 할 뿐 자기탐색에 철저히 못한 때문이라 밝힌다. 또 이는 결국 우리 사회를 유지시켜 온 정형화된 어머니상에서(정형화된 어머니상이 있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현모양처로 대변되는 어머니상을 말한다) 어느 계층, 어느 연령대의 여성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깨우친다.

보호받는 어머니와 보호받지 못하는 어머니

여성학자 김혜련(풍문여고 교사) 씨는 좀더 구조적인 측면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다양한 삶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극단화를 부추긴다. 한 예로 모성보호와 관련

잡힌 ‘여성의 실체’를 이렇게 분석한다.

“연령별로, 계층별로 처지와 조건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여성은 업무능력을 떠나 아이들 양육과 가사로 적지않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집안살림 잘하고 아이 잘

자녀 양육자 등 주변인으로 ‘사회화’ 효성여대, 여성연구소-학생- 지역주부 자발적 모임 시도

키우는 ‘어머니상’을 실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긴장하고 불안해 하기도 하구요. 반면 일을 갖지 못한 여성들은 이러다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정체성 불안에 시달립니다. 소비욕구 또한 이런 여성들의 갈등심리를 드러내는 현상이구요. 특히 자의식을 강조하는 젊은 여성들도 실제로는 삶을 전적으로 개척

삶의 조건을 언급하지 않은 채 사회적 양육자로서의 모성을 고집하며 모성이 여성의 궁극적 본성임을 주장하는 가부장 사회의 모성신화와 자본주의 사회의 자기발전논리가 필요로 하는 소비동물로의 여성, 남성의 경제력이라는 맥락에서만 위치지어지는 이분화 구조가 뿌리깊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혜정(연대 사회학) 교수의 지적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조교수는 <또하나의 문화 11호 - 새로 쓰는 결혼이야기 1>에서 “60년대 경제개발 독재 국가가 만들어 낸 국가가 지금 삼풍이 무너지듯 곳곳에서 부실공사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고, 그 부실공사를 미처 개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대 기업들이 대중매체와 손잡고 있다”면서 갈등에 길들여진 부부관계가 ‘보복의 시절’을 맞은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생산 영역이 지나치게 비대해 집에 따라 인간적인 의사소통과 감성이 들어설 자리를 잃어 버림으로써 갈등은 건잡을 수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조교수는 이 속의 여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개도국의 사모님에서 회사인간의 미시족 아내로’라고 말했다.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보는 존재로서의 여성

그렇다면 악순환을 반복하는 어머니들의 위상은 인격체로서,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어머니로 바뀔 수 있을까. 조교수는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론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바꿀 수 있는 기저에는 여성이 개체로서의 존재 즉 경제적 주체로, 인격적 주체로 인정받는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함과 아울러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가정을 사회와 연결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전제하지만 말이다. 이어 조교수의 처방은 ‘자기가 선 자리에서 새집을 짓는 것’으로,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보는 존재로서의 여성을 강조한다.

태혜숙교수의 처방은 좀더 구체적이다.

“남성중심사회는 끝없이 여성분리정책을 시도합니다. 때문에 항상 제품 하나 가누지 못하는 여성 아니면 성공한 여성만 존재하죠. 간 큰 남자애이든 신현모양처는 대표적인 경우라는 생각입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 끝만 드러내는 진단보다는 여성 내부의 자기성찰과 함께 활동반경을 확대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마침 태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효성여대는 지역여성교수, 학생들이 단절의 벽을 극복하기 위해 조그마한 모임을 꾸리고 있다. 교내 여성문제연구소와 학생들이 먼저 지역주부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그러면서 태교수는 지자체와 민간단체, 학교 등 지역사회가 단순히 취미나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만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몸담고 있는 대다수 여성들을 사장시키는 것 자체가 낭비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여성들의 자서전이 비록 ‘집에서 놀고 먹는’ 어머니들을 주눅들게 할 지라도 경제적 효율성과 치열한 경쟁논리로 무장한 회사인간 남성들의 반성과 함께 여성들의 자기탐색과 이를 위한 반경 넓히기는 끊임없이 시도되어야 할 숙제다. 그럴 때 진정한 ‘모권 확보 1세대’는 출현할 수 있다.

(손정미 기자)

“여성의 육체는 지금까지 영토인 동시에 기계로 여겨졌으며, 개척되어야 할 불모지이고 생명을 만들어 내는 조립 부품이다.”

‘모성의 신화’를 추적한 미국의 대표적 시인이자 여성학자인 에이드리언 리치가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에서 일갈하고 있는 신비화된 모성에 대한 선전포고문의 일부다.

리치는 결국 여성 스스로 자신의 육체에 지배자가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나아가 성, 정치, 모성, 권력, 노동 등이 새로운 의미로 발전해 인간사회에 보다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진단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모성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문제가, 청소년문제가, 아버지문제가 부족하나마 공론의 장에 입성했음에도 ‘어머니’는 없다. 아니 끊임없이 노인문제의 책임자로 자녀의 유

일한 양육자로, 복권되어야 할 아버지시대의 전복 대상으로, 때로는 소비동물로 ‘사회화’될 뿐 몇몇 여성학자들의 입을 제외하고는 진정한 ‘주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공론의 장이 없는 이들 기혼여성에 대한 담론은 가정의 달이 새롭게 끌어안아야 할 ‘사회화’의 화두다.

자아실현과 죄의식의 사이에서

“미시족 열풍에 이어 간 큰 남자 시리즈가 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의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위기의식을 느껴 끝만큼 간이 작아졌다고 하는데 그에 비례해 과연 어머니들의 위치가 격상되었는가 하는 점이지요. 현상적으로 ‘외출하는 엄마’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취미모임이나 쇼핑 수준의 외출에 그치거든요. 소비동물로서의 어머니들이 주된 이런 어머니들 스스로